

건축 전문 이야기꾼이 필요한 이유

A reason why need architecture specialized raconteur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건축사」에 글을 써 달라는 원고 청탁 전화였다. 어떤 내용을 담든 상관없단다. 그저 편집장의 한마디 정도로 생각하고 쓰면 된다고 했다.

나를 소개했다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하니,

“상희 씨는 인문출판사에서 건축 관련 단행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쓰면 돼요.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

책은 누군가와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지식을 얻거나 간접 경험을 하며 울고 웃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때우기 용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우리 출판사뿐만 아니라 몇몇 학술전문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출판사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지명도가 있는 필자를 찾는다는 건, 분야 지식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독자들의 호기심을 적절한 선에서 자극해 주는 이야기꾼을 찾는 일에 주력한다.

건축 분야 단행본을 만드는 나도 마찬가지다.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독자의 눈높이에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꾼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블로그, 잡지나 신문과 같은 정기 간행물,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 검색, 외국 책 검색 등. 업무의 상당 시간을 투자한다. 이야기꾼이 될 만한 필자 한 명이 분야에 인식 전체를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와 같은 책 한 권이 우리의 답사 열풍을 이끌었듯이 말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건축 분야의 이야기꾼이 많지 않다. 전문가는 많이 있는데 이야기꾼은 많지 않다. 일반 대중이 건축에 관심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닌 전문 용어가 많이 쓰여서, 학창시절 건축을 배우지 않아서 등등 여러 이유를 들어 굳이 이야기꾼이 필요하겠냐는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궁금하면 궁금한 사람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전문가 그룹을 따라와야지 굳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인지 건축 관련 단행본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하다못해 예술분야에서도 상위 10위권에 드는 책이 많지 않다.

모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책의 목적이 지식 자랑이 아닌 소통이라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집을 설계할 때 그곳에 살 사람의 생활패턴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써 내려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들과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도입한다면 일반 독자들이 건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타다오 안도나 렘 콜하스와 같은 건축사의 강연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지식 욕구를 제대로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건축 전문가들 밖에 없다. ‘우리들끼리의 소통’이 아닌 ‘대중과 소통’ 할 수 있는 건축을 위해, 책을 이용해 좀 더 많은 대중들이 건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어떨까. ■

이상희 / Lee, Sang-hee

도서출판 동녘 문화예술팀 팀장

- 덕성여자대학교
- 월간 C3 편집부
- 《한국건축 답사수첩》, 《한국건축 용어사전》, 《감각의 단면》, 《건축 학교에서 배운 101가지》, 《덕수궁》 등 기획 및 편집